



황강, 중국제 1 자동차 · 중차장객서 조사연구 시 강조

대담하게 모색하고 용감하게 혁신하도록 전 성 상하를 격려하고 기꺼이 책임지고 과감하게 잘 책임지는 것이 기풍으로 되게 해야

3월 18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중국제 1 자동차그룹유한회사와 중차장객자동차주식유한회사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전국 광회 정신을 선전 관찰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국 광회 기간 습근평 총서기가 발표한 일련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담하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제 15차 5개년' 계획의 실시예 초점을 맞추어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 성 상하가 대담하게 모색하고 용감하게 혁신하도록 격려하며 기꺼이 책임지고 과감하게 책임지며 잘 책임지는 것이 기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



▲ 3월 18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중국제 1 자동차그룹유한회사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중국제 1 자동차그룹유한회사 과학기술혁신기지 고체전지시험실에서 황강은 리튬물 전고체전지 기술의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상세히 료해했다.

중국제 1 자동차그룹유한회사 과학기술혁신기지 고체전지시험실은 현재 리튬물(硫化物) 전고체전지 기술 경로를 주로 공략하고 있다. 황강은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중앙기업으로서의 우세를 잘 발휘하고 혁신주체와 선두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동차 전 산업사슬이 우수하고 강해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고무했다. 전 성 공업기업은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공동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홍기제조중심 변형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된 '무인공장'으로서 매 50초마다 한 대의 완성된 차가 생산된다. 황강은 생산라인 운행 상황을 현장에서 고찰하고 중국제 1 자동차그룹유한회사의 '지능화 개조 디지털화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제 1 자동차그룹유한회사는 전 성

경제,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산업 혁신 발전의 발걸음을 바짝 따르고 핵심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끊임없이 높여 길림의 전면 진흥에 더 큰 힘을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황강은 중차장객자동차주식유한회사를 찾아 대차작업장(转向架车间)의 생산경영 상황을 고찰하고 회사가 자체로 연구개발한 수소에너지 열차 시승, 체험하면서 응용 보급 진행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사업보고와 국가 '제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은 수소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는 우리 성의 발전 방향에 고도로 부합되는바 길림의 전면 진흥에 중대한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우리 성의 수소에너지산업은 이미 규모를 갖추었으며 특히 중차장객자동차주식유한회사는 수소에너지 열차를 성공적으로 연구제작, 생산함으로써 수소에너지 응용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두었다. 우리는 얻기 어려운 기회를 확고하게 파악하고 국가 '제 15차 5개년' 계획의 관련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성 수소에너지 응용 계획의 보완을 서

두르며 년도 계획을 잘 편성하고 국가 관련 부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전력을 다해 각 방면의 지지를 쟁취해야 한다. 수소에너지 열차의 시험운행을 적극적으로 온건하게 추진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하에서 대담하게 돌파하고 대담하게 시험해야 한다. 전 성의 로후 철도와 관광 전용선의 수소에너지 열차 개조를 다그치고 성숙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이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열차에 앉아 길림성의 100년 철도 우를 달리며 과학기술, 자연, 역사 융합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장춘세계대학생동맹회 등 중대한 경기 활동에 수소에너지 열차를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세계가 길림 특색 발전의 최신 성과를 보게 하고 또한 중차장객자동차주식유한회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구축하는 데 량호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빈말은 나라를 그르치고 실행은 나라를 흥하게 한다. 윗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좀더 높이 서서 좀더 멀리 내다보며 좀더 실속 있게 시달하고 정력을 집중하여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실력을 단련하고 담당을 구현하며 학습과 실천을 진정으로 결합하고 실행으로 치적을 내야 한다.

장은혜, 왕자련, 손간, 구현동이 관련 활동에 참석했다. / 길림일보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

3월 18일,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 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황강은 장춘에서 한국국회 한중의원련맹 대표단 일행을 회견했다.

황강은 일행에 환영을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이다. 습근평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두 번 상호 방문을 함으로써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로 나아가는 데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 길림성은 한국과의 우호적인 왕래를 고도로 중시하며 경제무역협력, 인문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중국이 '제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다. 길림은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우리 나라 북쪽지역의 개방의 중요한 창구와 동북아시아의 협력 중심 중추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한중의원련맹과 함께 길림과 한국 지방간 인대와 의회의 교류

를 가일층 강화하고 산업 보완을 심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인문 상호 참고를 촉진하며 관광 협력을 확장하기를 희망한다. 2027년 세계대학생동맹운동회가 길림 장춘에서 개최된다. 한국의 청년대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이 방설과의 약속과 정충의 성취에 참석하기를 진심으로 초대한다.

한국국회 한중의원련맹회장 김태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지속적인 교류 역할 발휘를 통해 한국과 길림의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상생을 더 잘 실현하기를 원한다. 중한 두 나라 청년들이 2027년 한국 충청지역 세계대학생 동맹운동회를 계기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기 바란다.

성급 지도자 장은혜, 왕자련, 고팡민, 류개와 심양 주재 한국 총령사 김성민이 회담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촌민들의 '손녀딸'

흙내음 속에서 향촌진흥의 꿈 키우다



촌민들 눈높이에 맞게 조선어로 번역·설명하며 '정보의 벽'을 허물었다.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의 약 심부름, 교통카드 충전 등 생활 불편을 살피며 챙기며 '친손녀' 같은 정을 나눴다. 그녀의 진심은 마을의 변화로 이어졌다. 촌간부들과 함께 비만 오면 진흙탕이던 흙길을 2개월간의 공사 끝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바꿨다.

"단순한 행정업무 넘겨 촌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진정한 향촌진흥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촌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공산당 예비당원이 됐다.

한국 이화여대 석사 출신 김선연(30세)이 화룡시 룡성진 신원촌의 향촌진흥 전문간부로 변신했다. 해외 류학후 대도시 진출 대신 고향 연변의 작은 마을을 선택한 그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2023년 촌에 부임한 그녀는 뛰어난 조선어 실력을 살려 정책을

[관련 기사 3면]



3월 18일, 제 19회 길림현대농업기계장비전시회 및 장춘도시농업기계장비전시회가 장춘농업박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 국내 근 100개 농기계 생산 선도 기업들이 참가해 트랙터, 수확기, 보호성 경작 농기계 및 스마트 농기계 등 1,000여종의 기종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 길림일보

빠른 뉴스 바른 뉴스

항상 믿고 보는 결림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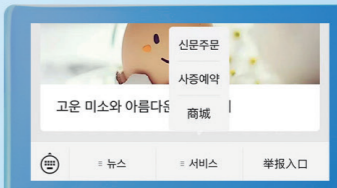


吉林朝鲜文报
全年定价
180元

未收到报纸或
投递服务态度不好
请拨打邮政投诉电话
11185转人工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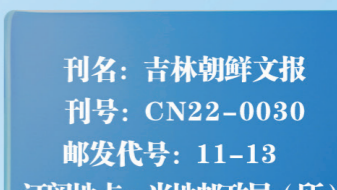
扫描二维码关注
《朝闻今日》微信公众号



点击公众号页面下方的
'서비스'
再点击 '신문 주문'



进入中国邮政-微商城
按照商城提示购买订阅
《吉林朝鲜文报》



刊名: 吉林朝鲜文报
刊号: CN22-0030
邮发代号: 11-13
订阅地点: 当地邮政局(所)
订阅咨询: 权勇
(15304312665)